SK온, 美 스타트업 전기차 수주
6년간 20GWh 배터리 공급 계약

미국 픽업트럭 시장 본격 공략
슬레이트 2도어 전기차에 탑재
고성능 하이니켈 배터리 공급 확대
美 생산공장 가동, 현지공략 가속

(왼쪽부터)크리스 바먼 슬레이트 최고경영책임자,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롱비치에서 열린 슬레이트 신차 공개 행사 중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SK온

SK온이 미국에서 신규 고객사를 확보하며 현지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있다.

SK온은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슬레이트'의 배터리 공급업체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SK온은 오는 2026년부터 2031년까지 6년간 약 20기가와트시(GWh) 규모의 배터리를 공급한다. 이는 준중형급 전기차 약 30만 대에 탑재할 수 있는 수준이다. 양사는 추후 차량 생산이 늘어날 경우 상호 합의하에 배터리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슬레이트는 지난 2022년 미국 미시간주에서 설립된 전기차 스타트업이다. 내년에 가격 경쟁력과 개성을 모두 갖춘 2도어 전기 픽업트럭을 출시할 계획이다. 가격은 3만달러 이하로 책정하는 게 목표다. 차량 제조공정과 디자인 등을 단순화해 판매가격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해당 차량에는 SK온의 하이니켈 NCM(니켈·코발트·망간)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이다. 에너지 밀도·안전성·성능 등 다방면에서 인정받은 제품으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중시되는 미국 시장에서 특히 수요가 높다. '주요 성능은 타협하지 않는, 믿을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겠다는 슬레이트의 사업 전략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배터리 생산은 SK온 미국 공장에서 이뤄진다. SK온은 2019년부터 미국에 선제적 투자를 단행해 공장 건설에 나섰고 2022년 배터리 양산에 돌입했다. 이후 안정적 생산 체계를 구축하며 고객 신뢰를 쌓아왔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SK온은 미국에서 올해와 내년에만 생산기지 3곳의 상업 가동을 앞두고 있다. 2026년 말 기준 SK온 글로벌 생산능력(CAPA)에서 미국 공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50%에 달할 전망이다.

이번 파트너십은 SK온의 배터리 공급 차종이 중저가 모델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이다.

그간 SK온은 주로 프리미엄급 차종에 배터리를 공급해 왔다. 더 많은 소비자에게 고성능 배터리를 제공하며 전기차 대중화에도 추가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이석희 SK온 대표이사 사장은 "이번 협업은 SK온의 기술력과 미국 양산 역량에 대한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한 계기"라며 "미국은 SK온의 핵심 전략 시장이며, 앞으로도 고품질의 현지 생산 배터리를 제공해 다양한 고객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 획득

LG디스플레이, 탄소관리 체계 고도화

LG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업계 최초로 글로벌 검사·인증 기관 TUV 라인란드로부터 '제품 탄소발자국 방법론'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제품의 생애주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국제 기준에 따라 정량적으로 산출하는 체계를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 LG디스플레이는 저탄소 제품 수요 확대와 인증 정보 요청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국제 표준인 ISO 14067에 기반한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 체계를 구축했다. 이 체계는 데이터 수집 및 계산, 영향 평가 방법 등 필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디스플레이 산업에 최적화된 자체 평가 방법을 추가해 체계의 고도화를 이뤘다.

또한 LG디스플레이는 제품 탄소발자국 평가 IT 시스템도 자체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제품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기존 제품 개발 시스템 데이터와 연동돼 별도의 추가 작업 없이 탄소발자국 수치를 신속하게 산출할 수 있다.

이번 인증을 통해 LG디스플레이는 탄소 배출량을 투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고객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고, 친환경 제품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정기 LG디스플레이 중형개발그룹장 전무는 "이번 인증은 친환경 제품 관리 체계가 글로벌 신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주는 유의미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ESG 경영을 위해 다양한 기술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

중기부,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오디션

32.5:1 경쟁률을 뚫은 390개 팀

국내 소상공인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라이프스타일 혁신 기업 육성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 1차 오디션을 연다고 27일 밝혔다. 오디션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23일까지 서울, 세종,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

라이콘은 유니콘을 지향하는 라이프스타일 및 로컬 분야의 혁신기업을 뜻하는 개념이다.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 소상공인이 창작자, 스타트업, 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사업은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눠 추진한다.

올해 사업에는 총 7147개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중기부는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팀을 선발했고, 이 중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390개 팀이 이번 1차 오디션에 참여한다. 온라인셀러 유형은 오디션 대신 서류 및 발표 평가로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60개 팀은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 최대 6천만 원을 지원받고, 오는 8월 예정된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파이널 오디션에서 최종 선정될 경우 최대 4000만 원의 추가 사업화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한국경제인협회가 파이널 오디션 공동 개최와 방송용 영상 제작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의 성장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만드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기자 vitna@

LG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손잡고 '냉각 솔루션 개발'에 본격 나선다. /LG전자

LG전자

직류방식 '칠러' 개발

LG전자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를 줄이기 위해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함께 국내 최초로 직류(DC) 방식 대형 칠러 개발에 나선다.

LG전자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화 빌딩에서 한국전력, 한화 건설부문과 '직류 기반 데이터센터 구축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3사는 총 10MW 규모 데이터센터 서버와 냉각설비 중 1MW를 직류 전력으로 공급하는 '전력 소비 절감형 데이터센터'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가 늘면서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해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와 발열을 줄이기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이혜민 기자 hyem@

특례보증 신설에도 "지원효과 미흡"

〈위기기업〉

중기부, 신보·기보 통해 4.5조 예정
"기존 수출우대比 혜택 체감 낮아"
관세 피해 판별 어려워 제도 보완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계획하고 있는 약 4조 5000억원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이 사실상 혜택이 크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관세 피해 기업'의 객관적 기준도 모호해 운영시 제도도 보완해야한다는 조언이다. 추경으로 신설한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약 3조3000억원, 기술보증기금이 약 1조2000억원을 운영한다. 신보와 기보는 기존의 일반보증과 구분해 특례보증을 공급할 계획이다.

27일 중기부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위기기업특례보증은 ▲미국의 관세부과 조치로 수출실적이 감소했거나 매출액, 고용 등이 줄어든 중소기업 ▲자동차 부품 등 관세피해업종의 중소기업 ▲산불 등 재난피해지역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 등이 받을 수 있다. 신보와 기보는 관세 피해에 대해선 직접 피해기업 뿐만 아니라 해당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간접 피해기업에 대해서도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특례보증의 경우 보증비율은 90~95%로 통상 85% 수준인 일반보증보다 높다. 보증료율도 0.2~0.5%p 우대해 기업들 부담도 덜어줄 예정이다.

하지만 예산정책처는 위기기업특례보증이 기존의 수출기업 보증우대과 비교해 혜택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보는 연간 수출실적이 100만 달러 미만인 수출 진입 기업의 경우 최고 매출액의 25~50% 한도내에서 최대 30억원, 보증비율 90% 상향, 보증료 최고 0.3%p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기보도 전년도 매출액 대비 수출실적에 따라 90~95% 수준의 보증비율 상향 우대, 0.2~0.4%p의 보증료 감면, 신용도 검토 항목 심사 및 전결 완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예정처는 "현재 추진중인 위기기업특례보증은 일부 보증료율 감면 혜택을 제외하면 특례보증에 따른 실질적인 우대 폭이 계획 대비 높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강화하기위해선 기존 수출 보증우대 혜택과 비교해 체감할 수 있도록 높은 혜택을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KCC글라스 홈씨씨, '숲 강마루 스톤' 리뉴얼

신규 디자인 2종 추가, 6종으로 늘어

KCC글라스 인테리어 전문 브랜드 '홈씨씨'가 '스톤테리어(스톤+인테리어)' 트렌드를 반영한 강마루 바닥재 '숲 강마루 스톤'(사진)을 리뉴얼 출시했다.

27일 KCC글라스에 따르면 숲 강마루 스톤은 천연석의 느낌을 구현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에 천연석 바닥재 대비 합리적인 시공 비용과 우수한 난방 효율을 가진 강마루의 장점을 더한 프리미엄 바닥재 제품이다.

이번 리뉴얼을 통해 ▲시로코 라이트 ▲소노마 크림 등 2종의 신규 디자인을 추가하면서 숲 강마루 스톤의 제품 라인업은 총 6종으로 늘어났다.

신규 디자인은 최근 타일 시장에서 선호도가 높은 색상과 패턴을 반영해 개발했다. 시로코 라이트는 모던한 그레이 톤과 웨이브 패턴으로 차분하면서도 세련된 공간 연출이 가능하다. 소노마 크림은 따뜻한 크림색 바탕에 섬세한 입자감을 더해 아늑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숲 강마루 스톤은 일반 강마루보다 두 배 이상 큰 규격(폭 398mm, 길이 800mm)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1등급 내수 합판과 HPL(High Pressure Laminate) 고강도 표면 코팅 처리를 적용해 온도 변화나 습도에 의한 변형과 뒤틀림을 줄이고 내마모성, 내열성, 내오염성을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